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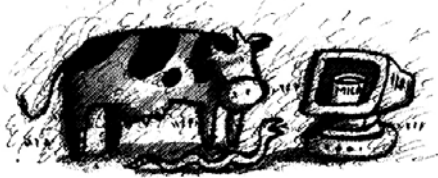
선지식 돈받고 뽑아서야...

교수임용 비리

'교수직 사고팔기'. 결코 풍문이나이었음이 확인됐다. 최근 교수신문과 학술 연구·채용 전문 사이트인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이 공동으로 실시한 '교수 임용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대학 교수직에 지원 경험이 있는 1천72명 가운데 사립대학 지원자 166명, 국립대학 지원자 11명 등 177명(16.5%)이 임용과정에서 금전적 요구나 학교발전기금 기부를 요청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 형식의 돈 액수도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달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또 응답자의 79%가 '교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 '학연이나 인맥 등에 의해 뽑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채용 공고를 낸다' (78%)고 생각했다. 교수 임용비리가 횡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 직접적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되지만, 실력을 쌓는데 몰두해야 할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는 결국 학문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게 뻔하다. 학연과 지연, 인맥을 배제한, 철저한 능력 위주의 선수 선발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대학 사회도 마음에 새겨야 할 때다.

수행해 먼저 자신을 바로잡은 다음에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다. <선경> <산된 방법을 생각하지 마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으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효요경 방일품> <선지식의 힘은 범행(정당한 행위)이 전부이다. <근본실체유무비내아잡사> <아침을 하는 마음은 도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한다. 마땅히 아침은 자타를 속일 뿐이어서, 불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교경>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그림·문병성

전자입실

20세기말에 이르러 과학은 크게 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양자물리학을 통해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자의 신비를 밝혀냈으며, 이 양자물리학을 근간으로 한, 독자적인 분자생물학의 발달은 생명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생명체들의 유전자 정보를 모두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빠른 과학 및 공학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컴퓨터를 보유하게 하였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과학 분야 전문가들은 21세기에 이르면 세 분야가 결합하여 매우 빠르게 과학과 공학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예측대로 정말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선진국들은 이들 분야의 통합적 핵심 연구과제의 하나인, 나노 미터(10억분의 1m: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인 길이) 크기인 미시세계를 제어할 수 있는 나노기술 개발 및 상업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일반인들까지도 이해

하고 있는 일이지만, 생물학자들이 한때 일시적으로 생명의 청사진이 들어있는 수백만의 유전자의 비밀을 도저히 다 풀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면서 유전자 서열 규명 작업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실리온 칩 제작 방식으로는 2020년이 되면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컴퓨터의 빠른 연산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 규명 작업도 역시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자 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유형의 기술인 광컴퓨터, 분자컴퓨터, DNA 컴퓨터, 양자컴퓨터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괄목할 만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현대인들 모두에게 생활 속에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은, 2002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

(PC)를 이용한 인터넷 분야일 것이다. 사실 요즘은 시골 할아버지가 운데에도 개인용 PC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과 더불어 하루를 보내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인터넷은 1969년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1986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교육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 컴퓨터의 순기능인 빠른 정보처리 및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잘 활용할 만한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으나, 컴퓨터의 역기능인 비정상적인 채팅, 게임, 도박 및 성인물 탐닉 등의 인터넷 중독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경쟁에서 뒤처지며 낙오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書狀' 보다 효과적 '전자서장' 출현 확신 부작용 보완위해 '인터넷계율' 제정 시급

연구용으로 그 용도를 확장하였으며, 상업적 이용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따로 협회를 구성하여 1992년 상용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컴퓨터 활용에 관한 불교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초발심사경문>에 보면 '뉘(뉘)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액)을 만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이다. 21세기의

의 장점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승승을 떠나 종교적인 수행자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영적인 스승과 만날 수 있다. 즉 '깨침의 길' 까지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종말 이후의 노사의 입적 이후 선교회 문화생활의 입실 지도를 해오던 중 지방에 계신 한 교수님의 적극적인 열의에 힘입어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실(電子入室)' 지도를 해보았다. 그 결과 직접적인 '입실' 지도와 똑같은 효과를

확인하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에 계신 여러 분들의 수행 과정을 잘 점검해오고 있다. 그런데 '전자입실' 지도방법을 꼼꼼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간혹선 수행체계를 확립한 남송 시대의 대혜 종고 선사(16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사대부당시의 전문 지식인들과의 서신교류를 통해 행한 '서신입실' 지도방법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대혜 선사께서 서신 지도했던 글을 모아 편찬한 <서장(書狀)>은 오늘날 간혹선 수행자들의 요긴한 필독서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만일 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실' 지도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대혜 선사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 이루어졌던 <서장>보다도 더 효과적인 '전자서장(電子書狀)'이 출현하리라 확신한다. 한편 인터넷의 단점인 인터넷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현실 생활을 등한시함으로써 학업·직장·결혼·대인관계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중독 현상에 관해서는 석가세존께서 승단을 형성하면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그때마다 계율의 제정을 통해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셨듯이, 영적인 스승들이 현대인들을 위한 인터넷 계율을 제정하고 이를 지니는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 함께 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ipark@ccs.sogang.ac.kr

"무엇이 부처와 마구니입니까?" "그대의 한 생각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이것이 마구니이다. 그대가 만약 단념을 생략하지 않으며 마음을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는 것에 통달하면,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어서 곳곳이 모두 청정하니, 이것이 바로 부처이다. 그러나 부처와 마구니는 물들거나 깨끗한 두 가지 경계이다. 나의 견처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예도 없고 지금도 없으니, 얻는 자는 곧바로 얻을 뿐 시간을 거치지 않으며, 뒤움도 없고 증득함도 없으며 얻을도 없고 잃음도 없을 뿐, 언제든 다시 무슨 다른 법은 없다. 설사 이것을 넘어서는 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꿈이나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모두이다."

법이라고 말하면 이미 법이 아니다. 법이라는 말이 법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라는 말로써 법을 이해할 수는 없다. 법은 말하고 침묵하고



알고 모르는데에 상관이 없다. 사람이 법을 말하고 법에 관하여 알음알이를 지을 뿐이지만, 말과 알음알이는 마치 허공 속에 울리는 메아리 같이 허망한 것이다. 법은 명백하여 의심이 없거나 아니

전성, 이미 익숙한 '법' 체험하는 일

면 아예 캄캄한 것이지, 반쯤은 알고 반쯤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체험하여 법에 통하여 버리면 점차 의심 없이 명백해지지만, 체험이 없이 생각을 따라 배운다면, 오래 상제히 법을 말할 수 있어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뿐이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18

그저 명백할 뿐이다

밥은 반드시 체험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 체험을 흔히 견성이라고 부른다. 체험을 통하여 확인되는 법은 전혀 예상 밖의 생소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단순하고 당연하고 이미 익숙하게 사용했는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게도

치 달같이 시간이 지나면 부화하여 병아리가 나오듯이, 법을 체험하고자 염원을 낸 자가 그 염원을 잃지 않고 더욱 간절하고 깊게 한다면 언젠가 그 염원이 부화하여 체험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공부에는 어떤 정해진 방법이 없다. 그저 간절히 소원하여 그 소원을 버리지 않고 더욱 깊게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공부 방법이란 이 소원을 일으켜서 잘 유지하고 더욱 깊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체험은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계기

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와 그러한 계기가 체험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가져온 염원이 때가 되어서 폭발하는 것이다. 체험할 당시의 계기는 그 폭발을 일으키는 악간의 자극일 뿐이다. 폭발력은 법을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삶의 일차적 관심을 온통 그 염원에 동요시켜 생긴다. 그 염원의 힘이 커져서 온 몸을 지배하게 되면 마치 바람이 평평하여 들어간 풍선처럼 되어 조그만 자극에도 폭발하는 것이다. 폭발의 체험을 하고 보면, 지금까지의 의심이 사라지고 그저 밝고 가볍고 편안할 뿐, 법이라는 이름이나 생각이 사라져 버린다. 이제 법의 힘이 온몸에서 직접 느껴지므로, 법에 관하여 말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저 명백할 뿐이다. 김태완·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선역 강좌 안내 부산대학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도교원회관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팔상도 Eight Scenes of the Buddha's Life 5. Asceticism For six years he studied and meditated to find the truth. He punished and disciplined the body until he was nearly dead. Finally realizing that this was not the right way, he began to live moderately.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육년 동안 공부와 명상을 계속했다. 그는 폭음에 이를 정도로 혹독한 고행을 했지만 결국 이 방법이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고 중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6. Temptation The demon Mara, symbolizing delusions which arise during meditation, tries to disturb Siddhartha's practice. First he sent worldly pleasures, when these failed, he sent his army-cum-monsters but Siddhartha was able to stop them. Siddhartha finally defeats all temptation and attain perfect enlightenment. 명상 중에 일어나는 망상을 상징하는 마왕 파룬이 싯다르타의 수행을 방해하려고 시도한다. 처음에는 세속의 쾌락을 보내 싯다르타가 마군을 보냈으나 싯다르타는 이들을 막아냈다. 싯다르타는 마침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x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나우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참회·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회와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에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